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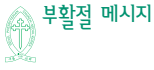
§ 2014년 표어 §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막10:45)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부활의 아침

청교도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 밖에 없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신의 죽음 만 있을 뿐 영원한 사망을 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죽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삯인 사망이 들 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 있는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육신적으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육체의 죽음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사랑하며 살던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덤덤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도 해역에서 침몰된 여객선 사고 때문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다 속, 사랑하는 자녀가 그 속에서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들은 오열하고, 분노하고, 실신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너무도 큰 아픔이며 비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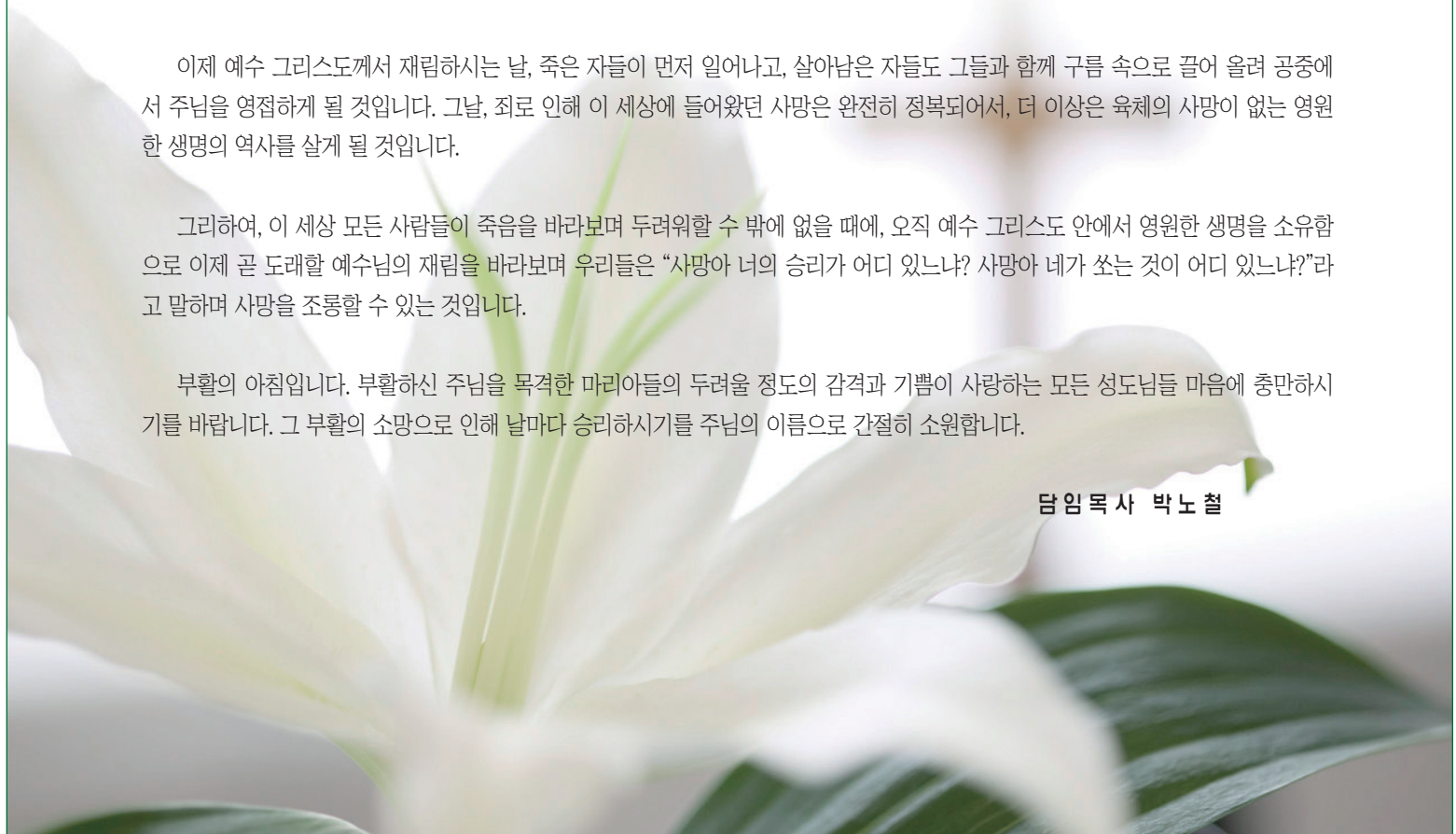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다시 부활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사망의 권세를 이기기 위함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 뒤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왔던 사망은 완전히 정복되어서, 더 이상은 육체의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 밖에 없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 으로 이제 곧 도래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마리아들의 두려울 정도의 감격과 기쁨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 박노철





예수 부활하셨다!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성찬식 찬양예배 시, 가브리엘 찬양대 부활절 절기찬양 / 순결 서약식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키며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며 부활절 감사 헌금과 금식헌금을 드린다. 성찬은 깊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받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또한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 찬양대(대장: 송인권 장로)가 부활절 절기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한편 "주를 향해 자기를 깨끗하게"(요일3:3)라는

주제로 거행되는 2014년 순결서약식이 오늘 찬양예배 시에 있다.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오후 4시 본당에서 있으며 순결서약 신청자는 다음과 같다.

- **중등부(21명)** : 강민성 김백겸 김지수 김희진 노지호 박승찬 박하은 방현민 소 준 송윤희 송지현 신동훈 오예성 이상운 이지우 장하랑 장해라 정민서 황수지 황채영 김소람
- **고등부(5명)** : 김수민 남유라 이다숨 이주영 조윤수
- **청년1부(3명)** : 백지수 이충원 임주빈

제14대 집사·13대권사 선출 기준 마련

서울교회 당회는 2014년 5월 18일(주)에 있을 제14대 집사·13대 권사 선출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집사, 권사를 적정수로 선출하며 교구장과 교구목사가 서울교회운영규정 제5조 3항의 기준에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면 당회에서는 적합한 후보자 정수를 확정하기로 하였다. 공동의회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하며 1회 투표로 완료한다.

집사의 자격조건은 만35세 이상 된 남자로서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이상 경과한 서리집사 및 협동집사 자격으로 3년 이상 봉사하고 디모데 전서3:8-13절에 해당하는 자로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되고, 주

일 찬양예배 및 수요예배 참석자이어야 하며 타 교회 향존직자로 이명해 온 자는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되어야 한다.

권사의 자격은 만50세 이상 된 여자로서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이상 경과한 서리집사 및 협동권사 자격으로 3년 이상 봉사하고 디모데 전서3:3-11절에 해당하는 자로 신덕이 있고 봉사에 모범되고, 주일 찬양예배 및 수요예배 참석자이어야 하며 타 교회 향존직자로 이명해 온 자는 본 교회 등록 2년 이상되어야 한다. 후보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자에 한 한다.

BBS(비블리오 바이블 학교) 공개 강좌

- 일시: 4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5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장소: 601호 초등부실
- 대상: -BBS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모든 부모님
-성경적 자녀 교육을 알고 싶은 부모님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부모님
-가족의 역동과 자녀의 인성 교육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모님



2014년 4월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 13일 주일 1,2,3부 예배 시 2014년 두 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마28:18~20)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매년 짝수달(격월) 3째주 주일 1,2,3부 예배 시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본 예식은 서울교회 3대 목표중 하나인 "천국시민양성"의 가시적 열매임과 동시에 본인에게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므로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7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금번 세례/입교/ 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강유진3, 김남희5, 김창수2, 류근휘, 문선영, 박건우, 박민재3, 박유희, 박운민, 박지명, 송은아, 송재윤, 양효단, 이미화1, 이수아2, 이필우, 장양화, 장훈2, 전주익, 정유진8, 좌은경, 호창복, 홍미란1 계 23명
 - **입교자** : 남단비, 박나래, 박민수, 박민우, 박연준, 오민재, 이승필, 이영주6 계 8명
 - **유아세례자** : 김은준, 김재윤, 김주연, 노진우, 심지우, 이서현, 이지아, 한정영, 홍유정 계 9명
- 총 40명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27)

(문 127) 성전 재건이 지연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답) 에스라4:7-23은 외국인들의 방해를 들고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주전536년에 시작한 후 르흠과 심새가 아닥사스다왕께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림으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학개1:2에서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성전 재건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도 또 다른 이유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20년에 학개가 전한 메시지나 14년 후에 공사가 재개된 것은 이 같은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이론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고레스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이 재기하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경중을 올리는 위험 신호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파사 궁궐에서 성전 재건 허락을 받기 위해 지혜자들을 동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524년 감베스의 사후 그리고 522년 가우마타가 승하한 후 다리오 1세가 등극하고 권세를 잡으면서 유대인의 성전 건축 노력에 전기가 마련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쏟았고 성전 재건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허락 없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될 경우 다가 올 위험 부담을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서 이 상황에 대해 오해가 있습니다. 520년에 학개가 성전 재건 운동을 벌이고 있었을 때 르흠과 심새는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닥사스다왕(464-424)께 보낸 상소문은 464년 이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편지가 왕께 전달되었거나 또는 그의 답신이 그들에게 보내져 성전 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도성의 재건과 외곽 방어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성전 자체는 516년(에스라6:15)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운동 과정에서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총독 닷드내와 스달보스내와 그들의 동관들이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공사는 막지 못하고 다리오에게 문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에스라5:3-17) 다리오왕이 문서 참고를 조사해보니 고레스왕의 조서가 발견되어 마침내 성전 건축을 막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에스라6:1-12)

르흠과 심새의 방해는 후에도 수 십 년 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벽 재건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계속)



Easter message for foreigners

How Crucial is Christ's Resurrection?



Pastor Daniel J. Kim

Without a doubt, Christ's resurrection is a most crucial event in Christianity. Every essential Christian doctrine, even the cross, stands or falls on the validity of Christ's resurrection. Apostle Paul says,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our preaching is useless and so is your faith" (1 Cor. 15:14).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your faith is futile; you are still in your sins" (1 Cor. 15:17). "If only for this life we have hope in Christ, we are to be pitied more than all men" (1 Cor. 15:18).

What, then, are the negative implications if, indeed, there were no resurrection of Christ? First of all, death would be declared as victorious, and the Devil would have the final say. As a result, Christ would be discredited as the divine Son of God and Redeemer of humanity. The spectacular claims of Christ's life (virgin birth, miraculous deeds, sinless life, and sin-bearing death) would all be discredited, apart from the

climactic demonstration of his resurrection. Christ's crucifixion would be considered meaningless and its saving value would be invalidated. Thus, our faith would be based on some sentimental memory of a martyr's death. Our preaching of the reality of the risen Lord would be regarded as a lie. And our worship on Sunday as the Lord's Day (based on Christ's resurrection) would be a hypocrisy. Moreover, our eternal destiny would become uncertain since the promise of eternal life would be questionable. Finally, without Christ's resurrection, there would be no resurrection and hope for us at the end. Therefore, all that we value and consider as essential elements of Christian faith would be invalidated, if the resurrection of Christ can be proven to be false.

However, there are an overwhelming amount of evidences, especially in terms of the numerous individuals claiming to have witnessed the resurrection of Christ: Mary Magdalene and other women at the tomb; Peter and other apostles in the upper room; two disciples on the Emmaus Road, the crowd of 500 who witnessed Christ's ascension; and Saul/Paul (who once persecuted

Christians) who claimed to have witnessed the resurrected Lord. Moreover, there is the powerful reality of transformed lives of Jesus' disciples: Mary Magdalene (from sorrow to joy), Thomas (from doubt to assurance), Peter (from fear to courage), and other disciples (from despair to purpose). Yes, the numerous disciples of Christ were so certain and convicted that they had witnessed the resurrection appearance of Jesus that they went out to boldly proclaim the gospel and to lay down their lives for Christ's cause.

Now, people rarely die for half-hearted belief, and surely never for a known hoax or fraud. But people may radically embrace a cause if, indeed, it is a cause based upon the greatest reality . . . the reality of resurrection of a man who claimed to be the Son of God, the Redeemer of humanity. Yes, Christ's resurrection is a historical fact. Our faith is based on factual reality. If Christ had not been resurrected, then our faith and witness would indeed be useless, and we are to be truly pitied for our blindness and deception. But, as Apostle Paul declares,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1 Cor. 15:20).



부활절절기찬양

LUX AETERNA 영원한 빛

때가 차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범죄 함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신 주님
참혹한 고난과 고통 당하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요
참을 수 없는 조롱과 멸시를 견디심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다 이루었다"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성경 말씀 대로 사망권을 이기시고
잡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삼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세 다시 사신 예수님
할렐루야! 찬양하세 예수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부활 하신 이 기쁜 날 저녁에
주일 아침 첫 예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가브리엘찬양대가 부활절기 찬양을 준비 하였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찬양을 드리기를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값진 수고를 통하여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았습니다.
이 저녁 온 성도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부활절 찬양 예배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가브리엘찬양대 대장 송인권 장로



부활의 아침

십자가의 능력



김예환 권사 (12교구)

요 여전히 죄안에 있고 영생도 소망도 없겠지요.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우리 죄를 속량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부활과 진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공급 받아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소원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이 아침,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으로 죄를 덮으셔서 보배롭고 존귀한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날마다 죽어야 살고 빛의 열매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망권을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면 부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계절에 우리 서로 라일락 향기가 되어 어지러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성도들의 고난과 연단은 축복입니다.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려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양을 준비 하셨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리더라도 영적 감각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로 화목 제물을 삼으사 의롭게 하셨으니 세상을 이길 능력은 십자가(복음) 밖에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누어 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 강림 하실 때 그분의 권세로 택한 족속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라 하셨으니 주님 재림의 날을 환희로 기리고 순종으로 부름의 그 날까지 달려가겠습니다.



2014 순결서약식

나의 영적 결단



이흥헌 성도
(청년부)

지난 5일과 12일에 순결서약교육을 받고 이제 순결서약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에 걸친 교육을 통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 울타리 안에서의 진실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과거 어떤 때보다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세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여러 매체를 통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는 성 문제로 인해

사회에서 각광받던 인물들이 단번에 바닥으로 치닫게 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 문제는 우리들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순결 서약식이 누군가에겐 무늬만 순결을 서약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겐 이해되지 못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나 스스로와 하나님이 택하여 주실 나의 미래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영적 결단임을 압니다. 지금껏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약해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과 순결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5년, 10년이 지나고 먼 훗날이 되어도 지금의 마음을 지키고, 언젠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순결서약식을 기대해 봅니다.

천국시민양성-호산나대학

격려해 주세요



2014년 호산나대학을 졸업한 문병훈(23세, 발달장애 3급)군이 발달장애인에게는 사법고시와 같이 어렵다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되었고 초기에는 일정시간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어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지만, 2010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후 한국보건교리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제로 변경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병훈군은 호산나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익산에서 청평으로 이사까지 온 열혈학생이지만 현재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어 평소 외로움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입학 초기 화를 자주 내고 친구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지만 호산나대학 선생님

들의 따뜻한 사랑과 또래 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면서 점차 활발한 학생으로 변하였고 어려운 가정생활을 극복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은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문병훈군은 호산나대학에서 노인케어학과를 전공하며 요양보호사 과정에 대한 많은 교육과 실습을 받았습니다. 특히 2013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시범사업」에 참여해 현장 경험을 쌓았고, 졸업후에는 청평에 소재한 우리향기요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2014년 호산나대학 인턴과정에 등록해 주경야독하며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학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시험에 도전해 합격한 문병훈군은 이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정직원으로 당당히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문병훈군의 도전과 성취를 계기로 호산나대학 재학생들은 자랑스런 선배를 가지게 되었고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도전하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호산나대학 오승중 부장

■ 특별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대장: 송인권 장로)의 특별찬양으로 부활의 기쁨과 승리의 찬양을 드린다. 백경화 집사의 지휘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G.puccini곡)", "구원해 주소서(G.Faure곡)",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여(E. Elgar곡)"와 바하의 "부활주일 칸타타"에서 2곡을, 그리고 "사도신경(W.Mozart곡)", "주술로 거룩하시도다(J.Rutter곡)"를 연주한다. 오르간 차주연 집사, 피아노 임아름 성도, 팀파니 윤주일 집사, 타악기 안평강 선생, 트럼펫 김승연, 최치윤, 장보석 선생이 함께 하며, 곡중 독창을 서수민, 정미랑, 이종훈, 이장기 성도가 담당한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2일(화) 군선교발전위 예비모임을 소집한다. 23일(수)부터 25일(금)까지 평광교회 춘계부흥사경회를 인도한다. 24일(목)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재단이사회에 참석한다. 25일(금) 한국로잔위 지도자 모임에 참석한다.

■ 출간 : 오처열 장로 「스피리추얼케어의 실천」
■ 음악회 : 2교구 김현정11 집사 '밖으로 나온 오르간' 4.22(화) PM 8:00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 주일식당봉사 : 베드로선교회 에스더전도회 (420) 바울선교회 마리아전도회(427)
■ 금주의 식사 : 최학인 장로 최소희 권사 가정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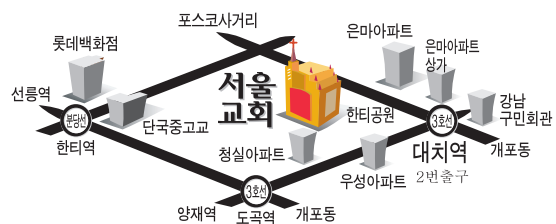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죽음의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2. 여객선 침몰로 사랑하는 이를 잃고 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시고 빠른 구조가 이뤄 질 수 있도록
3. 순결서약에 임한 서울교회 다음세대들이 그 서약을 잘 지키서 성결의 능력과 함께 주의 거룩한 도구들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새 벽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본 당 II 층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